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최 태 연 1)

1. 들어가며: 왜 포스트모던(postmodern) 시대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를 '포스트모던' 또는 '탈현대'의 시대라고 부른다. 왜 그럴까?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산업혁명 이후 끊임없이 발전해 온 현대 과학기술 문명 덕으로 점점 더 편리하게, 점점 더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며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합리성과 효율성이 중시되고 사회적 규범과 질서가 존중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도 현대 문명의 연장선 위에 있으며 철저한 합리적 기술의 산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변했기에 우리의 역사적 위치를 현대로부터 벗어난, '현대 이후의' 시대'라는 뜻의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인가?

현대 과학기술문명을 만들어 낸 사고방식을 우리는 '모더니즘'(modernism)이라고 부른다. 모더니즘은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the Enlightenment)에서 발원한 사고방식으로 중세 기독교의 종교-학문-문화에 대한 단일한 해석에 반발하여 고대 그리스-로마의 다양한 사고를 다시 복원하려는 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계몽주의자들은 기독교의 계시 신앙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그 대신 전통이나 관습으로

1) 천안대

부터 자유로운 이성(합리)적 사고와 뉴턴에 의해 설명된 기계적 우주관을 열렬하게 받아들였다. 계몽주의의 이러한 비판정신과 합리주의, 또한 경험주의와 실증주의는 비판적 합리성과 실용적 기능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낙관주의적인 현대 과학기술 문명을 형성시켰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낳은 사상에는 또 다른 흐름들도 있었다. 반문명적 자연주의를 설파한 루소나 원초적 생명력을 찬양하는 초인 사상을 서구 문명의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운 니체, 신비적 낭만주의 시인 휠더린, 탐미적 허무주의의 감성을 노래한 보들레르, 니체와 휠더린에 심취했던 실존과 존재의 사상가 하이데거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했던 이들의 '또 다른' 계몽주의는 마침내 1914년에 발발한 일차대전의 불합리와 잔혹함에 의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고 1920년대로부터 이를 반영한 아방가르드 예술과 실존주의 사상 및 문학이 꽃피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해묵은 반유대주의 신드롬, 극우·극좌 이데올로기의 대립, 1차대전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유럽 주요국가들의 알력, 자본주의 시스템의 첫 번째 시험대였던 20년대의 경제공황이 혼합되어 빚어낸 이차대전이 미국의 개입으로 종결된 후, 서구는 또 다시 계몽주의의 이상대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의한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된다. 동서 냉전의 대결구도를 제외하고는 모더니즘의 완성이 눈앞에 도래한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 서구가 이러한 낙관론에 젖어 있을 때, 일단의 예술가들이 다가오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들은 조직적인 사회체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사회현상을 느끼고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세기 문명에 내재한 불안을 제일 먼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느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사상들을 이미 니체나 하이데거, 휠더린이나 보들레르가 제시했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한편으로 현대문명이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하고 효율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어 놓았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에 의한 인류멸망에 대한 공포, 자유와

번영이 주는 고독과 불안, 주체성의 분열과 상실도 확장시키고 있음을 간파했다.

마침내 현대문명이 주는 이러한 불안과 분열 현상은 점차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공감을 얻어갔다. 과거에는 현실의 복잡함, 우연, 불안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언제인가는 질서와 규범이 성취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월남전과 석유 위기, 경제 성장의 한계와 환경 파괴를 겪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에 대한 자신을 잃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 기대를 성취시켜 줄 원동력인 인간의 합리성 자체에 깊고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지식인 사회에서 더 이상 절대불변의 진리나 필연적인 역사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수가 되어가게 되었다. 반면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간직한 모순에 대하여 좀더 솔직하게 되려고 했다. 그래서 다시 각광을 받게 된 사상이 니체의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 사상[2]과 프로이트의 '무의식'(das Unbewusste) 또는 '본능'(Trieb)[3] 이론이다. 이제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본능'이라는 생각이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4]

우리 한국의 사정도 이러한 서구 주도의 현대 문명의 흐름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비록 우리 사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산업구조와 정치·사회 제도 양면에서 과학기술과 민주주의가 주도하는 문명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 형식을 움직이는 사고방식과 가치관, 종교의식은 여전히 동양적이고 전근대적인 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구를 본 딴 제도와 그 제도를 움직이는 정신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오는 혼란과 갈등이 여전히 사회

2) Friedrich Nietzsche, *Nachgelassene Fragmente 1884-1885*, Kritische Studienausgabe, hrsg. v. G. Colli/M. Montinari (Muechen: DTV, 1988), 700쪽.

3) Sigmund Freud, *Psychologie des Unbewussten*, Studienausgabe Bd. III (Frankfurt am Main: Fisher, 1975) 참조.

4) 포스트모던 문학비평가 수잔 손탁은 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학'(hermeneutics) 대신 예술의 '관능학'(erotics)을 제안하기도 한다. Susan Sontag, *Against Interpretation* (N.Y.: Anchor Book, 1966), 14쪽.

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는 실정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의 기독교조차 아시아에서 유래를 볼 수 없이 부흥했지만 한국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한국 기독교에는 이미 서구 사회를 뒤덮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아직 현대의 합리성에 의해 극복되지 못한 권위주의, 연고주의, 지역주의, 민족분단, 정경유착의 고리가 아직 단단한데, 통제 불능의 디지털 문화의 범람, 뉴에이지 종교와 문화의 유행, 성과 결혼 규범의 해체 및 동성애의 정당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만일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을 말하려면 근대의 계몽주의에서 발전한 모든 현대적 사상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기독교 세계관'을 새로운 상황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는 화란개혁교회의 신칼빈주의(Neo-Calvinism)에서 나왔고[5] 그들의 주요한 과제는 계몽주의와의 대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의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포스트모더니즘은 더 이상 계몽주의의 기독교 비판을 반복하지 않는다. 도리어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경험과 논리를 초월하는 세계를 향한 문을 열어 놓는다. 이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독교 세계관과의 일정한 친화성도 가진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다수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유대-기독교 전통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합리주의의 일원성과 절대성 주장에서 벗어나려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경향은 어떤 특정한 세계관에 대한 절대적 긍정을 회피 내지 거부하게 만든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원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기독교 세계관이나 절대적 윤리규범을 존중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주장으로 보이는 것이다.

---

5) Abraham Kuyper, *Het Calvinism* (Amsterdam: Hoverker Wormser, 1989); Herman Bavinck, *Christelijke Wereldbeschouwing* (Kampen: KOK, 1913) Herman Dooyeweerd,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Philadelphia: P&R, (1957-59) 참조.

이제 우리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이 문화적 힘으로 작용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하고 또한 어떻게 이 세계관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포스트모던 시대를 성격을 규정하는 사상이 모더니즘 문화에 반대하는 일종의 반문화 운동인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이미 1920년대였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 하나의 중요한 문화 운동이자 문예 사조로서 대두된 때는 1950년대 말이었다.[6] 현대의 인간만능의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에 반대하는 일단의 예술가들에 의해 시작된 이 운동은 1980년대에 이르러 근대 이후 200년 간 서구의 지배적 사상이었던 '모더니즘'에 속하는 사상들인 계몽주의, 합리주의, 실증주의, 기능주의 등의 허구성과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사상 운동으로 발전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자본주의 또는 후기산업사회로 규정되는 20세기 후반의 서구 사회가 만들어 낸 거대한 문화 운동이며 사회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의 목적은 현대 사회에서 감추어졌거나 무의미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속에 잠재해 있던 모순과 갈등을 도발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 이 운동은 서구가 계몽주의 이후 인간의 합리성에 의해 이룩한 모든 문명을 하나의 착각과 조작 위에 건설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들은 진리/비진리, 현실/비현실, 정상/비정상, 유용/무용, 중심/주변 등을 구분하는 원칙을 부정하고 이 세계와 인간의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6) Hans Bertens, *The Idea of the postmodernism* (London/N.Y.: Routledge, 1995), 3쪽.

모습을 그대로 긍정하고자 한다. 그들에게 '진리의 절대기준'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이성이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욕구(desire), 의지(will), 감성(sentiment)이 인간의 마지막 근거가 된다. 그들은 이러한 원초적 본능이 때로는 정신 분열적으로, 때로는 장난기 어린 유희로, 또는 도발적인 예술행위로 표현되는 것을 즐긴다.[7] 그들은 모더니즘 사고가 만들어 낸 수학적 질서와 최고의 기능과 효율을 자랑하는 시스템을 비웃고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산뜻하고, 또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음악과 미술작품과 건축양식을 만들어 냈다. 연극과 영화에서는 할리우드에 의해 대변되는 상업 영화의 잘 짜여진 이야기와 매력적인 주인공들이 벌이는 긴장 어린 사건들 대신에 사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주인공인 누구인지 스토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장면들의 연속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살고있는 현실이

---

7)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문학비평가, 소설가, 음악가, 미술가, 건축가, 무용가, 연극인, 영화인, 사진작가와 그들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문학비평: 찰스 올슨(boundary2) 레슬리 피들러(경계선를 넘고 간격을 좁혀라), 이합 하산 (문화, 불확정성 그리고 내재성), 수잔 손탁(해석에 반하여, 급진적 의지의 스타일)

소설: 제임스 조이스(피네건의 경야), 새뮤얼 베켓(고도를 기다리며), 호르헤 보르헤스(픽쇼네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창백한 불꽃), 움베르토 에코(장미의 이름), 토마스 핀천(브이, 중력의 무지개), 존 바스(미로에서 길잃어),

음악: 존 케이지(침묵, 0'0''), 루카스 포스(타임사이클), 조지 크람(검둥이 천사들), 밀턴 배빗(필로델), 스톡하우젠(미크로포니I), 폴린 올리베로스(장미의 달)

미술: 로버트 라우센버그(코카콜라모형), 프랜시스 베이컨(교황의 초상), 앤디 워홀(팝아트), 로이 리히텐슈타인(만화), 백남준(비디오 아트), 론 키타이(아니, 아니라면)

건축: 로버트 벤츄리(등근천정), 찰스 젱크스(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 찰스 무어(이탈리아 광장), 알도 로시, 제임스 스털링(돔없는 돔), 필립 존슨(AT&T사옥), 마이클 그레이브(포틀랜드 공공빌딩), 리카르도 보필(황금수의 광장)

무용: 머스 커닝햄, 이본 라이너(세 개의 바다경치), 루신다 차일즈(기분전환), 로버트 윌슨(스탈린의 생애와 시대)

연극: 에드워드 올비(미국의 꿈), 해롤드 핀터(귀향), 피터 브룩(마라/사드, 한여름 밤의 꿈), 리빙 시어터(브릭), 그로토프스키(묵시록)

영화: 마이클 스노우(파장), 장 뤽 고다르(Vivre Sa Vie), 말콤 르그라이스(풀밭위의 식사), 팻 오닐(소거스 시리즈), 조지 쿠카스(스타 워즈), 레슬리 손튼(제니퍼, 어디있니), 피터 윌렌(애미!), 마이클 스노우(이것도 그래)

사진: 해리 캘러헌(무수한 이미지), 신디 셔먼(무제), 안드레 세라노(성애의 역사), 대니 라이온(맨하탄 저지대의 해체), 제리 올즈만

질서보다는 정신병적인 혼돈과 무질서에 가깝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8]

이렇게 포스트모더니즘은 과거의 전근대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늘날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 현대의 질서를 다시 해체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 칼 헨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9]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적 진리는 접근 불가능하고 실재나 본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석자 안에 있다고 믿는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주의(Pluralism)를 필연적이고 바람직한 문화적, 철학적 현상으로 본다. 그 결과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신념과 신앙의 수정가능성(revisability)를 인정한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지성의 효용성을 이성의 이론적이고 비판적인 활동 자체에 두지 않고 한 사회에서 삶을 바꾸는 실제적 기능에 둔다.

넷째,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재의 역사를 미래의 최종적 목적과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다섯째,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사고의 내용을 철저하게 문화적 산물로 본다.

칼 헨리의 지적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가 획득한 지식의 객관

---

8) 포스트모던 사상가로는 형이상학적 진리와 윤리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생의 맹목적인 의지'를 설파했던 광기어린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이체와 합리적 인식론을 부정하고 시를 통해 표현된 '존재'의 진리를 찾기 위해 서양사상의 근원으로 되돌아 가려했던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선구자들과 그 뒤를 따르는 일군의 자극적인 사상가들이 60년대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프로이트를 따라 정신이 아닌 무의식적 욕망과 본능이 인간의 진정한 주인임을 재해석한 라깡, 사회의 효율적 통제와 지배를 위해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나누고 정신병원과 감옥을 통해 이러한 분리를 실행한 근대사회를 고발한 푸코, 서양의 형이상학을 백인들의 신화로 간주하고 서양문화사를 근원적인 존재의 드러남과 감추임이라는 역설의 논리로 풀어 나가는 데리다, 더 이상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실재보다 더 그럴듯한 가상(시뮬라크르)이 지배하는 첨단 기술사회의 미래현실을 어둡게 내다 본 보드리야르, 등의 사상가들은 인간지식과 기술의 축적과 함께 밝은 미래와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하리라는 현대인의 장미빛 기대를 여지없이 뒤흔들어 놓았다.

9) Carl F. Henry, "Postmodernism: The New Spectre?", in: St. Grenz et al. (ed.), *The Challenge of Postmodernism* (Gran Rapids: Baker, 1997), 40쪽.

성과 가치의 절대성과 지성적 반성의 효용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의미와 목적성 자체를 거부하고 모든 사상과 신념 체계를 한낮 문화의 산물로, 그것도 대부분 왜곡되고 조작된 문화적 산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두 얼굴을 가진다. 한 면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이성숭배와 진보의 이념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이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일방적인 낙관적 인간관에 반하여 창조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면이 타락했다는 기독교 세계관의 진리를 반증해준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도달한 결론인 진리와 가치에 대한 회의주의와 상대주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드러내 준다. 진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3.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세계관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이후 서구문명의 정신적 기초를 제공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 이성과 주체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직접 기독교 세계관을 정면으로 공격하거나 비판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포스트모던 예술가나 사상가들은 계몽주의자 볼테르나 현대의 무신론자 버트란트 러셀처럼 기독교를 직접 비판하는 것을 그들의 과제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 중 일부 사상가는 기독교 신비주의에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유대계 프랑스인인 자크 데리다는 초기에 유대인 종교철학자 엠마뉘엘 레비나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부정신학에 대한 강연까지 한 적이 있다.[10] 마찬가지로 유

10) Jacques Derrida, *Wie nicht sprechen. Verneinugen* (Muenchen: Passagen, 1989).

대계 프랑스 사상가인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도 인간 이성으로써 서술할 수는 없지만 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숭고한 대상에 대해 새롭게 증언하는 방식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부른다.[11]

3.1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과 특징

그러나 비록 일부 포스트모던 사상가가 절대자를 암시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기독교 세계관의 진리성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상대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게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관과 가치관은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creation), 타락(fall), 구속(redemption)의 세 단계로 이어지는 창조론적이고 구속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12] 양승훈 교수는 기독교 세계관의 세 가지 핵심 사상을 다음과 같이 알게 쉽게 설명한다.

첫째, "창조는 모든 존재와 인식의 기원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초가 된다..... 창조를 생각하지 않고는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도 바르게 해석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논의는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13]

둘째, "타락은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된 피조 세계가 오늘날 왜 이렇게 피폐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말해준다. 즉 타락은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포함하여 모든 반역의 원천이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 세계 사이의 관계를 훼손시켰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끊임없는 범죄와 수많은 반성경적인 세계관, 학설, 주장, 이데올로기의 기원이 곧 인간의 타락이다".[14]

---

11) J. F. Lyotard, 『포스트모던의 조건』(서울: 민음사, 1992), 180쪽.

12) A. M. 윌터스, 양성만 역, 『창조, 타락, 구속』(서울: IVP, 1992); 리차드 미들톤/브라이언 왈쉬, 황영철 역, 『그리스도인의 비전』(서울: IVP, 1987);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서울: CUP, 1999) 등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개론서에 공통된 내용이다.

13) 양승훈, 같은 책, 53f.

14) 양승훈, 같은 책, 74.

셋째, "구속은 피조 세계가 사탄이 왕 노릇하는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상태로 회복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의 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 회복으로서의 구속이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처음의 무흠한 상태가 있었으며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파괴되었음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회복이란 말 그대로 돌아가는 것, 혹은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15].

이러한 창조-타락-구속의 사고 틀 안에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포괄성, 직관성, 개방성, 실천성이라는 네 가지의 특징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의 포괄성(종합성)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수 천년 동안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계시가 기록된 성경이 세계와 인간과 역사와 사회와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관점이다. 월터스가 세계관을 "제반 사물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 신념의 포괄적 체계"[16]라고 정의한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의 삶을 성경에 근거하여 일관성(coherence)있고 통일되게(unified) 만든다. 즉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 가치와 윤리, 예술과 문화, 성과 결혼, 노동과 직업, 사회와 국가, 지식과 학문, 과학과 기술, 이데올로기, 역사 등의 모든 영역에 일관되고 조화로운 대답을 주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관을 가리키는 독일 말인 '벨트-안샤웅'(Welt- Anschauung)의 의미처럼 아직 경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밀하게 논증되기 이전의 직관성(intuitivenesss)을 갖는다. 즉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해 학문적으로 정밀하게 논증되기 이전의 직관적이고 신념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말한다. 그래서 양승훈 교수는 세계관을 '공기'에 비유한다: "세계관은 과학과 철학에 비해서는 논리적이지 못하며, 신념에 비해서는 의지적이지 못하고, 신앙에 비해서는 초월적인 면이 부족하지만 철학, 상식, 신념, 신앙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17]

---

15) 양승훈, 같은 책, 93ff.
16) A. M. 월터스, 같은 책, 2쪽.

셋째, 기독교 세계관의 또 다른 측면은 '개방성'(openess)이다. 여기서 개방성이란 말은 두 가지로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먼저 기독교 세계관의 개방성이란 현실(차안)의 세계만 고집하는 무신론적 실증주의 세계관도 아니고 피안과 내세만 주장하는 초월적 세계관도 아니며 양자가 서로 열려 있어서 교통이 가능한 세계관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전광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지상 차원, 현실 차원, 역사 차원 속에 닫혀있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상을 넘어 천성, 현실을 넘어 내세, 역사를 넘어 피안의 세계를 말하고 수용하므로 '열린 세계관'을 얘기한다. 닫힌 세계관에서는 세계와 역사 바깥에 있는 신이 역사와 세계에 간섭하는 것을 부인하지만, 열린 세계관에서는 내세와 초월 계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세계가 이 역사와 세계에 영향을 주고 관계한다는 것을 주장한다."[18] 과거에 루소 같은 계몽주의자들이나 마르크스 같은 유물론자들이 기독교를 '피안(내세)의 종교'로 못박고 기독교를 배척한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의 이러한 개방성을 간과했거나 오해한 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개방성은 또한 기독교 세계관이 역사적인 변화 없는 불변의 내용으로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상황에 민감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미들톤과 왈쉬는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세계관은 무오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감히 우리의 세계관을 고정시키지 않는다. 세계관은 현실에 의하여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세계관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19]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개방성은 다른 세계관을 무조건 무시하고 배타하는 입장

17)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1999), 34쪽.
18) 전광식,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서울: CUP, 1998), 44쪽.
19) 리차드 미들톤/브라이언 왈쉬, 같은 책, 46쪽.

이 아니라, 다른 - 종교적, 문화적, 인문학적, 과학·기술적 -세계관들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고 경쟁하면서 비록 본질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자기수정을 받아들일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특징은 '실천성'(practicability)이다. 흔히 기독교 세계관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그 시작부터 기독교적 삶(Christian Life)을 위한 실천적 성격을 강조해 왔다. 신칼빈주의의 창시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한 많은 이론가들 역시 기독교 세계관 연구의 목적이 이론적 성취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의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에서의 일관된 신앙의 실천에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이 글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될 것이다.

3.2 기독교 세계관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차이와 공통점

기독교 세계관과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세상 속에서의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의 확장을 위해 포스트모더니즘이 주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은 통합적이고 학문적인 세계관 자체를 거부한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진리나 한 사실의 고정된 의미와 목적을 거부한다.

셋째, 모든 사상을 문화적 배경으로 환원시키면서 그 주장의 진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종교를 거부하지 않지만, 모든 종교를 개인의 취향과 자의적 선택의 문제로 본다. 따라서 기독교의 초자연적 계

시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섯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윤리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죄성을 거부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기독교와 친화성을 보여준다. 21세기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공통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첫째, 양자는 과학주의적 세계관이 갖는 인간 이성중심의 이론보다는 인간의 신념, 의지, 정서를 중시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능적 이성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인간(본)성이라는 것이다.

둘째, 모든 진리는 역시 문화적 역동성 속에서 표현된다는 사실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진리와 문화를 동일시하지 않지만, 세계관의 내용이 문화를 통해 표현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화의 적극적 기능을 인정한다.

4. 맺는 말: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대답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동안 기독교를 비지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과거의 종교로 치부하고 무시해 온 현대의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기술만능주의와 낙관주의를 안으로부터 허물고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생각이 자기기만과 착각이라는 사실을 현대주의가 부인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성장의 둔화, 생태계의 위기, 자본주의의 끊임없는 불안정, 선진 산업사회의 실업 및 인간소외 현상에 의한 정신병과 자살의 증가, 뉴 미디어와 첨단기술에 의한 불평등의 심화와 인간 정체성 상실 등은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21세기의 세상 역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죄에 의해 타락하고 혼돈이 지배하는 현실임을 인정하게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치부가 드러난 모더니즘의 무신론을 형편을 이미 시편기자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로다"(시편 2: 4)라고 노래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포스트모던 문화가 범람하는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논리적 변증을 통해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포스트모던의 회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문화에 길들은 세대에게는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끼게 하고 실제로 경험하게 해야 한다. 미래의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체험케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이 그들이 미심쩍어 하는 단지 '이론의 종교'나 '권력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기 전에 상처받은 후기현대인의 자기분열적 상태를 이해하면서 복음을 통한 치유를 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기독교의 논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거나 의심하는 이들에게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요한일서 3:18)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문화의 특성과 포스트모던 세대의 상상력과 느낌과 체험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보여줄 때 교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해

첫째, 삶의 전 영역에 일관된 답을 줄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의 전개, 둘째, 기독교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열린 자세와 겸손한 인식,

셋째, 기독교 세계관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세계관의 선구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미 19세기말에 세계관이 단순한 지식체계가 아니라, 삶의 통합과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는 '삶과 세계에 대한 관점'(life and world view) 또는 '삶의 체계'(Life-system)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20]

---

20)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94), 11쪽.

Abstract

Christian Worldview in the postmodern Era

Choi, Tae yon[21]

Why do we call nowadays the 'postmodern' era? It seems inadequate to title our times because we live in an era in which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triumph. But the postmodern era already started with the disbelief on human rationality and optimistic future. The postmodernism accuses the reason and intelligence as the center of human being and refuses the objectivity of the truth and norm. It uncovers desire, sentiment and fantasy as alternative. Christian worldview is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creation, fall and redemption and applies them to all regions of human activity. Christian worldview unexpectedly goes hand in hand with the postmodernism against the Enlightenment. Christian worldview and postmodernism do not recognize the assumptions of the enlightened modern culture. Christian worldview can not accept postmodern relativism and scepticism, but it learns the way of Christian testimony for the next generation from it. Because Christian worldview is not only a theory, but a doing 'Life-system'(A. Kuyper).

21) Chonam University